

‘자동투구판정시스템 시대’ 프로야구 포수가 사는 법

수비형 ‘지고’ 공격형 ‘뜬다’



프로야구에서 수비형 포수의 설 자리는 좁아졌고, 공격형 포수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컴퓨터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결정하는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 시행에 따라 포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수비에서 공격 쪽으로 확연하게 쏠리는 모양새다.

KBO 리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수비형 포수보다는 방망이 실력과 수비 기량을 겸비한 포수를 중용해왔다.

ABS 시행 후로는 타격 재능이 더 뛰어난 포수가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잦아졌다.

수비형 포수 하면 능수능란한 볼 배합과 안정적인 투수 리드, 볼로킹 능력, 높은 도루 저지율 등이 떠오른다.

심판의 눈을 교묘하게 속여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받도록 미트를 잘 움직이는 프레이밍 능력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밀한 ABS의 도입으로 포수의 프레이밍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ABS에서는 투수의 볼이 홈 플레이트 스트라이크 존 중반부와 후반부를 동시에 통과해야 스트라

이크 판정을 받는다. 미트로 아무리 낮은 볼을 건어 올리고 높은 볼을 찍어 내려도 타자의 신장에 맞춰 설정되는 컴퓨터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못하면 볼이다. 프레이밍으로 기계를 속일 순 없다.

올 시즌 베이스 크기가 종전 15제곱인치에서 18제곱인치로 커지고 이에 따라 각 베이스 간의 거리가 줄면서 도루는 폭증하는 추세다. 포수 능력으로 이런 경향을 막을 수도 없어 각 구단이 도루의 1차 저지선인 투수의 견제 능력에 더욱 기대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과거 수비형 포수에게



KIA 포수 김태군(왼쪽)과 한준수

(KIA 타이거즈 제공)

컴퓨터는 못 속인다...프레이밍 사실상 효력 상실 포수 가치 평가 주요 지표 ‘공격형 안방마님’ 대세

바라던 기대치가 많이 줄었다. 선두를 달리는 KIA 타이거즈의 올 시즌 주전 포수는 김태군이며 그를 뒷받침 할 두 번째 자원은 한준수였다.

그러나 6일 현재 한준수가 23경기 7타석에 나서 김태군(23경기 67타석)을 출전 경기 수와 타석 수 모두 앞질렀다.

우투좌타인 한준수의 매력 포인

트는 바로 타격 실력이다. 그는 타율 0.375에 타점 13개, 장타율 0.500을 기록해 하위 타선의 장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탯티즈의 포수 부문 타격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 1위는 0.94의 김형준(NC)이다. 김형준은 타율 0.289에 홈런(7개), 타점(20개)은 이미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을 넘어

섰다. 장성우(KT), 양의지(두산), 박동원(LG), 이지영(SSG), 강민호(삼성) 등 각 구단 주전 포수는 타격 실력을 일찌감치 인정받은 선수들이다.

바닥까지 쳐졌다가 중위권을 넘보는 kt의 반동 주역으로는 타격 부진을 떨쳐내고 타율을 0.280으로 끌어올린 장성우가 손꼽힌다.

평균 이상의 수비 실력에 타격 재능을 겸비한 포수가 있는 팀은 행복하지만, 방망이가 신통치 않은 포수를 둔 팀은 괴롭다. 한화와 롯데의 고전 이유 중 하나가 공격형 포수의 부재다. /연합뉴스

KO 진영 ‘GO, GO’ 코르다 6연승 막는다

LPGA 파운더스컵 타이틀 방어·시즌 첫 우승 ‘정조준’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타이틀 방어와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한다.

고진영은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출전한다.

파운더스컵은 고진영이 지난해를 포함해 세 차례나 우승한 각별한 인연을 지닌 대회다.

2019년 정상에 오른 데 이어 2020년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뒤 2021년 다시 우승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엔 당시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섰던 이민지(호주)를 연장전에서 따돌리고 LPGA 투어 통산 15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후 고진영은 부상 등의 여파로 기록을 보이며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4개 대회에만 출전한 그는 두 차례 톱10에 올랐으나 지난달 메이저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선 컷 탈락했다.

로 마쳐 파운더스컵 2연패 도전에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한 건 고무적이다.

올해 대회엔 고진영을 필두로 유해란, 양희영, 김아림, 신지은, 최혜진, 김세영, 지은희, 이미향, 안나린, 전인지, 임진희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의 앞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라는 거대한 벽이 돌아온다.

이번 시즌 앞서 열린 LPGA 투어 10개 대회 중 무려 5승을 쓸어 담은 코르다는 세브론 챔피언십 이후 3주 만에 실전에 나선다.

코르다는 현재 자신이 출전한 대회를 기준으로 5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면 LPGA 투어 최초의 ‘6연승’을 달성한다.

5개 대회 연속 우승은 코르다와 더불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보유하고 있으며, 코르다가 이번 주 우승하면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연합뉴스



그래도 직전 대회인 2주 전 JI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며 공동 4위(5언더파 279타)

KIA 마운드 ‘복덩이’ 네일 ‘셸힐릭스플레이어’ 등극

3-4월 투수 부문 WAR 1.70 1위...타자 부문은 키움 김하성

올 시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를 선두로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KBO와 한국셀슈어주식회사(이하 ‘한국셀’)가 함께 시상하는 ‘셸힐릭스플레이어’의 2024 KBO 리그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KBO와 한국셀은 7일 “KBO 리그 3-4월 월간 ‘셸힐릭스플레이어’로 투수 부문은 KIA의 네일, 타자 부문은 키움의 김하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셸힐릭스플레이어’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반으로 선정하며, 3-4월 투수 부문에서는 KI

A 네일이 WAR 1.70으로 1위를 차지했다.

네일은 평균자책점 1위(1.47), 다승 1위(4승), WHIP(이닝 당 출루 허용률) 2위(0.98)에 불넷은 단 3개만 내주는 등 4월 중순부터 랭킹 상위권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왔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가 옵션 15만 달러 포함 총액 70만 달러(약 9억4천만 원)에 영입한 네일은 팀 동료 크로우와 이번 시즌 9승을 합작하며, 원투펀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셸힐릭스플레이어’의 2024 KBO 리그 첫 수상자로 선정된 KIA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네일은 8일 삼성 원정전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4월 월간 ‘셸힐릭스플레이어’에 선정된 선수의 시상식은 소속구단의

홈구장에서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한국셀 후원을 통해 시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주흥철 기자

‘0대7’ 한국 여자축구, U-17 아시안컵서 북한에 대패

오늘 조별리그 인도네시아전·12일 필리핀전

한국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첫판에서 북한에 대패했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7 대표팀은 6일 인도네시아가 발리 유니티드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북한에 0-7로 크게 졌다.

한국은 전반 중반까지는 잘 버텼으나 전반 41분 리국향에게 처음 실점한

것을 시작으로 견잡을 수 없이 수비가 무너졌다.

특히 교체 카드 두 장을 쓰며 변화를 주면서 임한 후반전 시작 2분 만에 전 일정에 3번째 실점을 한 게 치명적이었다.

북한의 전일정은 헤트트릭을 기록했고, 리국향과 허경도 이날 총 2골씩을 넣었다.

한국은 이날까지 북한과 여자 U-17

대표팀 간 전적에서 1승 1무 6패로 크게 밀린다.

특히 이날 나온 점수는 북한 상대인 연령대 역대 최다 점수 차 패배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0-4’였다.

이 대회는 8개 참가국이 4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4강 토너먼트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위는 오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2010년 U-17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하다 2018년 대회 본선에 진출해 조별리그 탈락했고, 그다음에 열린 2022년 대회에는 다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북한과 더불어 필리핀,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한 조로 묶였다.

북한의 조 1위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김은정은 이날 대패하면서 다음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김은정은 9일 오후 8시 인도네시아, 12일 오후 5시 필리핀을 상대로 토너먼트 진출에 도전한다. /연합뉴스